

# 학생 의견, 교육정책에 반영되나

###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서거석 교육감 “학생중심 교육정책 수립역할 기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자원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0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전북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 1일 진행된 학생의회 출범을 위한 교육감·학생 간담회.

## “익산 초등생 일탈행위, 담임교사는 학생 민감정보 유출”

###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교사사회원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교사사회원은 29일 익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한 초등학생의 일탈행위를 인터넷과 TV방송에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언론들은 교사의 위법행위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초등학생의 일탈행위의 자극적 내용을 소재 삼아 보도 경쟁을 벌였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일탈행위에 대해 우리 교사들은 교육적이고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생을 상대로 배타적 권리화하는 것은 교권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인터넷과 방송에 공개한 것은 반교육적이며, 이를 교원조직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교육이라는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과 TV방송에 공개해 인격적으로 매질하고 낙인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며, 인격살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게 경징계 요구를 했다.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많은 교사들이 해당 교사의 행동에 같은 교사로서 참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실에서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맞지만, 학생의 신상을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해 지속적인 낙인을 찍는 것에 교사로서 충격적”이라며 “해당 잘못에 대해 정당한 처벌과 학교 학생들이 고충받지 않도록 분리·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언론에 선전적인 노출이 꼭 필요했는지 학교와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가정, 친구,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에 있어도 우리 교사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념이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환영”

### 전북교총, “생활지도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 교권침해 시 즉시 제재·분리 방안 구체화 등 후속대책 필요

### 학생부 기록, 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도 추진해야”

전북교총은 2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일 한번 이상 수업방해, 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드러난 교권침해는 법산의 일각일 뿐이고 교권침해가 얼마

나 일상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비방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결의문 채택,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피해교원 즉시 분리 조치 가해학생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7월 교총 설문 결과 교원들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GTEP사업단

### 12억 지역기업 제품 수출 성과

전북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사업단장 김민호(이하 김민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한·베 메카트렌드 박람회에 참여, 역대 최대인 12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GTEP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무역학과 김기영, 황덕건, 경영학과 백지원 학생이 전북 소재 중소기업인 두손푸드와 제이웰푸드와 함께 참여해 현지 바이어 상담과 현장판매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천연조미료 제조 업체인 제이웰푸드는 베트남 바이어와 한화로 약 12억 원(85만2,000달러)을 계약하는 실적을 냈다. 함께한 두손푸드 역시 여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추후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백지원 학생(경영학과)은 “B2B 중점의 박람회에 처음 참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있었지만, 천천히 바이어의 니즈를 파악하며 유동성 있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며 “정식 계약을 위한 샘플 판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상품의 특화점이 있어야 바이어에게 어필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구미대와

### 유연 학사제도 운영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SI 뉴테크전략실에서 구미대학교 직업교육혁신센터와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유연 학사제도 운영 우수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원휘 학사지원처장, 황성대 교육과정혁신센터 팀장, 박지현 직업교육혁신센터장, 황재호 교무처 선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혁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세부적인 논의사항으로는 두 대학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보완 발전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 개방·공유·협력력을 통한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점검했다.

또한 학생 역량 향상을 위해 △교양/전공 교육과정 운영체계, △학과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체계, △교육과정 성과관리 운영/지원체계, △교양 및 전공역량 운영체계, △원격수업 등 유연 학사제도 운영방법 및 관련 규정/지침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다문화 고교생

### 글로벌 진로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글로벌 진로 캠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진로캠프는 다문화가정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 능력에 알맞은 다양한 진로 정보를 안내하고 나아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9월 30일과 10월 14일, 그리고 2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전주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된다.

먼저 전주대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진로와 대학의 이해 등 맞춤형 진로 정보에 이어 경찰학과, 영회방송학과 등에서 실습과 체험 중심의 학과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한다. 이어 원광보건대에서는 △대학교 및 학과 안내 △지문 적성검사 등 진로·적성 탐구 프로그램에 이어 글로벌발행서비스, 물리치료과 등에서 다양한 학과 체험과 진로 정보를 안내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자연대 창립 70주년

# ‘과학으로 새 도약’

### UN 세계기초과학의 해 맞아 내달 ‘자연과학주간’

### 세계석학 등 기초과학 대중화 위한 강연 ‘다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영아)이 10월 첫 주를 ‘자연과학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간 지역을 기초과학으로 몰아가는 축제의 장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29일 전북대 자연대에 따르면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10월 8일 오후 2시 뉴실크로드센터 7층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연대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를 함께 돌이켜보고 이를 기념하는 식수행사, 그리고 학생과 교수들의 기념공연, 기념 강연 등이 이어진다.

기념강연은 전북대 자연대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이 강연자로 나선다. 노벨과학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히는 성균관대 이영희 명예교수(IBM 나노입자연구단장)가 나노과학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국내 민물고기 연구자의 대부’로 손꼽히는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가 ‘우리 물고기와 생물다양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이날 기념공연에서는 1935년 ‘과학조선’에 실린 과학의 노래가 전북대 자연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주와 목소리로 오랜 세월을 거슬러 현대와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념식 외에 10월 4일부터 이어지는 전북대 자연과학주간 행사는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7일까지 하루씩 테마를 정해 과학으로 즐기고 함께하며, 미래를 꿈꾸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4일은 ‘과학 놀다’라는 ‘학생·교·교수’ 다함께! 골든벨’을 비롯한 ‘학생·교수 N-리그’, ‘다문화 스모가스보드’ 등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5일은 ‘과학 물다’를 주제로 이 시대의 과학을 그은 인물들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여러 방송을

통해 어려운 과학에 대한 지면 확대에 나서고 있는 스타 과학자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의 저자 이은희 작가와 MZ 세대 뇌과학자로 유명한 송민령 박사가 즐거운 과학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선사한다.

이어 ‘과학 함께하다’를 주제로 6일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기념강연이 열리고, 마지막 7일에는 ‘과학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이덕환 교수(탄소문화원)와 이중민 교수(서울시립대)가 ‘과학 교수들의 7분 7갑’ 시간을 진행한다.

이영아 학장은 “세계기초과학의 해에 창립 70주년 행사를 여는 만큼 많은 이들이 어렵고 생소하게 여기는 기초과학의 대중성을 확인하고, 이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다양한 주간행사를 마련했다”며 “지난 70년 간 기초과학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이 기초과학의 뿌리가 힘을 재확인하고,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과학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은 1951년 10월 문리과학대학으로 설립돼 1982년 자연과학대학으로 개편됐다. 지난 70년 동안 13,528명의 학부 졸업생과 석사 및 박사 학위자 2,570명을 배출했다.

QS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6년 간 순위권에 포함됐고, 물리/천문학과 화학 분야 국내 13위, 환경과학 분야 국내 12위 등 대내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165여여명의 연구비를 수주하며 전년 대비 23.4%의 연구비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물리학과 최성열 교수팀과 노희성 교수팀이 정부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융합형과 심화형 신규 과제에 각각 선정되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10명과 교직원 등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진행한 2주간의 한국문화 체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싱가폴 테마섹 학생들, 전주서 한국문화 체험 마무리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진행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10명과 교직원 등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진행한 2주간의 한국문화 체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2주간 한국문화 체험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을 시작으로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고추장마을, 군산근대사역사 및 문화탐방, 무주태권도원 등지를 여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1대로 매칭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문화 체험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관광지와 체험장마다 함께 다니며 싱가포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설명했다.

특히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 학생들과 함께 피시방과 카페 스티커 사진찍기 등 한국 대학생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직접 진행한 임현정 교수의 지도에 따라 싱가포르 대학생과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전북지역 관광지를 함께 둘러본 뒤 외국인 시선에서 본 전북 관광지에 대해 장단점 등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